

성도의 빛 3

198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3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되리라

성도의 벗

1989년 3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3권, 제28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9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3KO

PRINTED IN KOREA 3/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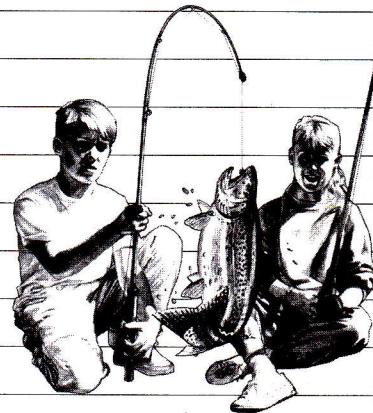
- 2 대관장단 부활절 메시지
- 3 대관장단 메시지: 그리스도의 상징.....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9 주님의 성찬을 이해함.....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5 질의 응답: 금식의 요소.....제이 로저 플러맨
- 16 성찬 전달에 합당치 않음.....렉스 더블류 알레드
- 17 들국화의 교훈.....앤 램린
- 19 불편을 겪으신 메시아.....제프리 알 홀런드
- 25 군목이 마음을 돌린 경위.....랄프 모튼슨
- 27 다락방.....마빈 케이 가드너
- 29 영적인 계곡.....캐롤린 제이 라스무스
- 30 나는 그들의 기도를 느꼈다.....다이아나 허드슨
- 31 방문 교육 메시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 33 교회를 제외한 모든 일에서의 동반자.....레논 클로스너 홀렛
- 36 가족 지침서: 탈수증 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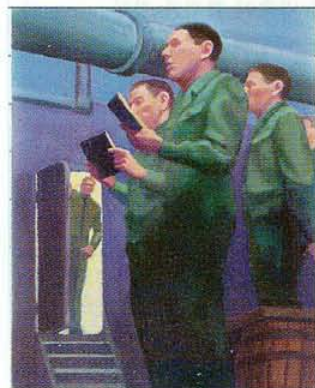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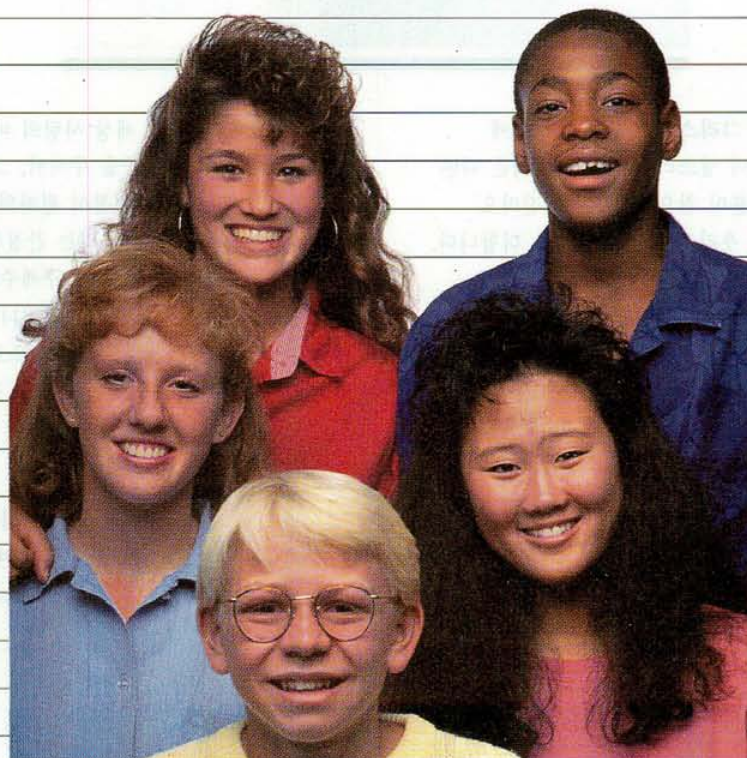
청소년란

- 38 기억.....칼로스 이 애시 장로
- 43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제네비브 반 와그넨
- 45 할아버지의 세 아들.....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 49 청소년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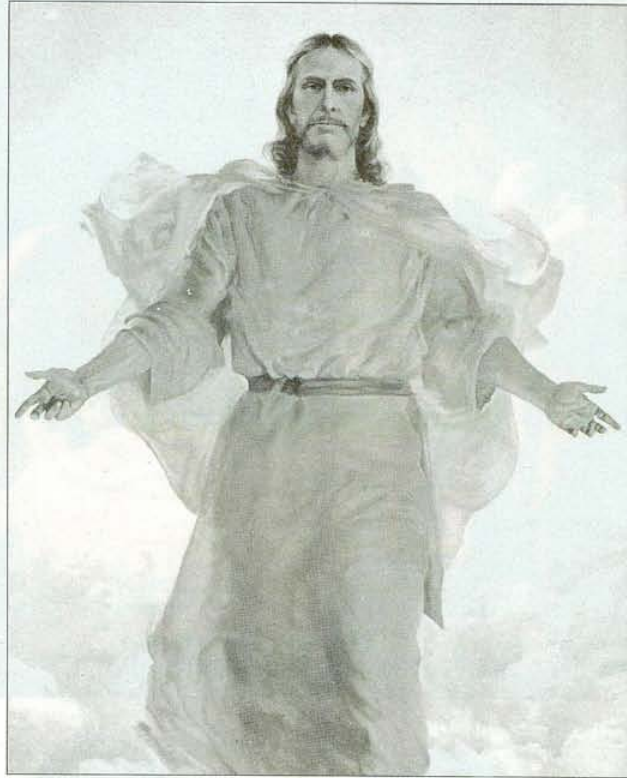
어린이란

- 2 경전 이야기: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신 예수님
- 4 이해심 많은 친구.....앤 에스 부쉬맨
- 7 함께 나누는 시간: 성찬에 대해 감사함.....팻 그래함
- 8 색칠하기: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심.....디 에이 스토운





대관장단 부활절 메시지



기독교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이 성스러운 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 위에 그분이 참으로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시라는 우리의 엄숙한 간증을 더합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 구속주,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름으로써 세상이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됨을 간증합니다.

이제 세상은 거의 어느 곳이나 대지와 나무와 꽃이 겨울의 죽음에서 일어나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은 구세주의 부활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봄이 희망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은 기꺼이 죄를 극복하고 각자의 생활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움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신성한 영향력을 받아 이웃과 더불어 평화와 형제애의 정신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의 축조의 희생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화평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획과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그리스도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떤 표적이거나, 어떤 예술 작품, 어떤 형태의 표현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완공하거나 사용중인 성전을 보수하고 나면
현납식을 갖기 전에 며칠간 오픈 하우스를 가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가 아름다운 내부를
구경하게 합니다.

나는 그러한 오픈 하우스에 약 250,000명이 방문했던 경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구경이 끝난
뒤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신교의 목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샅샅이 다
보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지만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안 보이더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기독교 종파의 형제들에게
감정을 거스릴 생각은 없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회원들의 생활은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의미있는
표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공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신성한 영감을 받아 말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신 분의 탄생, 성역, 죽음, 부활 등의 사건이
언급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영광을 돌립니다.
고대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유일한 “이름”임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12 참조)

신세계에서의 성약인 몰몬경은 고대에 서반구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 가셨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그것은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또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1,5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쓴 몰몬경의 서문에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그책을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계시의 책인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성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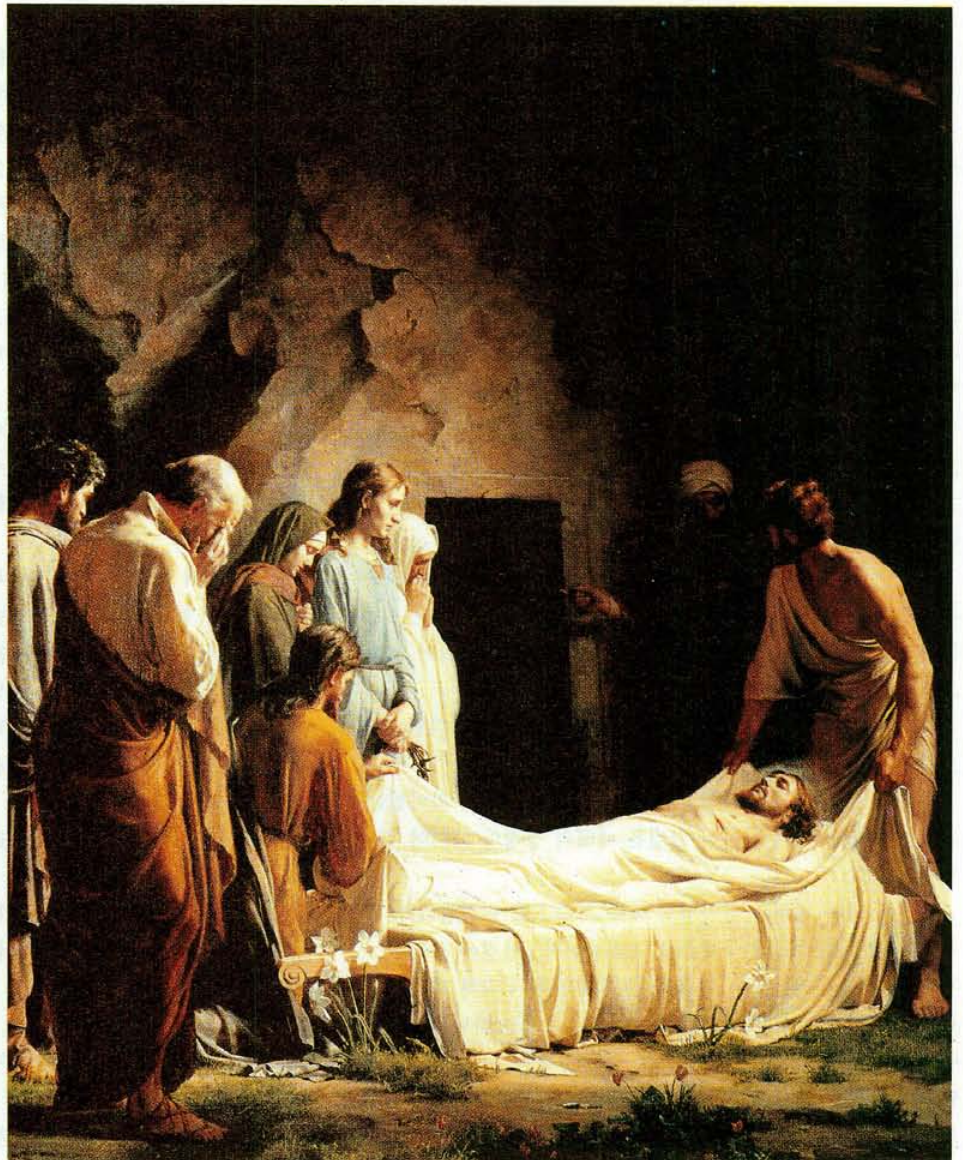
이러한 선포와 간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직자
친구가 했듯이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한다면 어째서 그의 죽음의 상징인 갈보리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 교회의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구속주께서 치루신
엄청난 대가, 즉 갓세마네의 고뇌, 재판정에서의 모욕, 그의 살을
찢는 가시관, 빌라도 앞에서 폭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
갈보리로 가는 길을 외롭게 걷는 무거운 발걸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의 끔찍스러운 고통, 그 비참한 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24)라고 외치신 하나님 아들의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 등을 잊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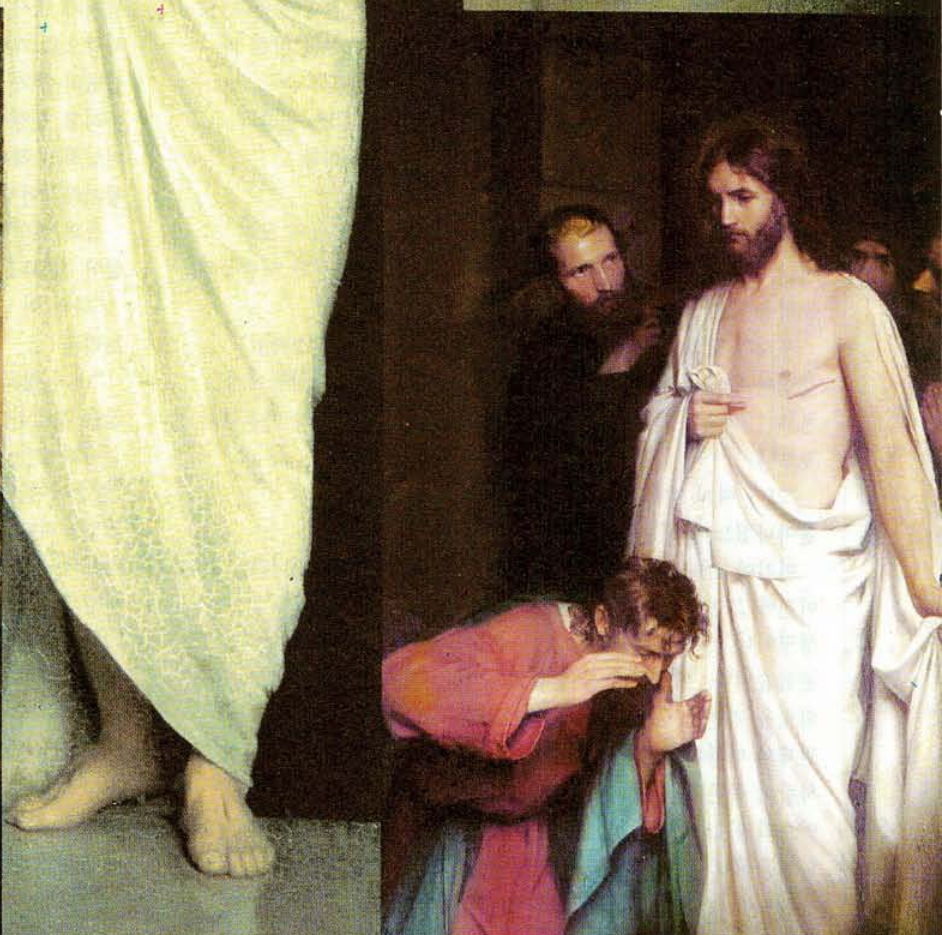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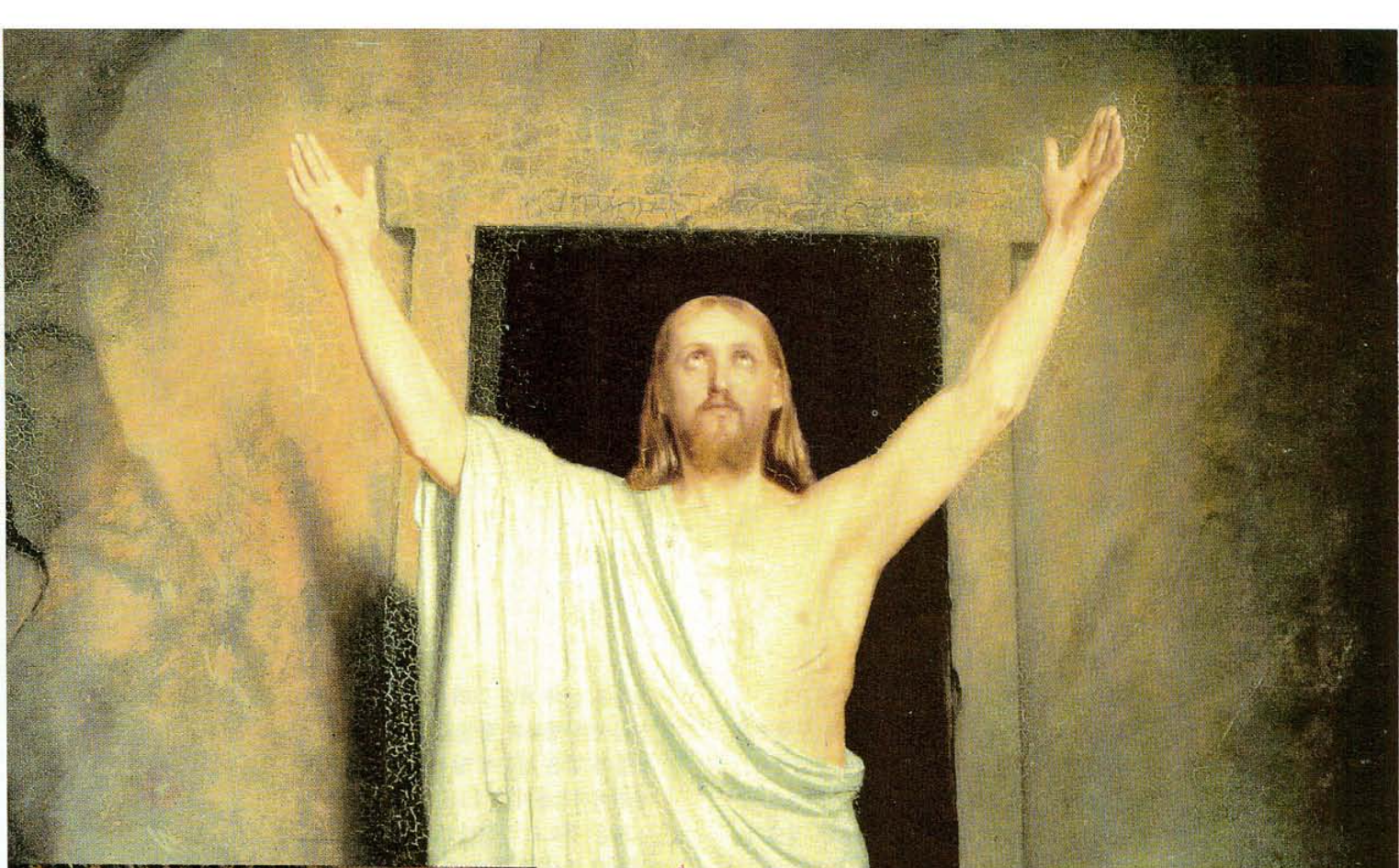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서 고문의 도구며, 평강의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된 무서운 장치며, 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기적적인 업적을 악으로
보상한 기구였습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외로운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우리 각자를 위해 대속의 희생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안식일 전 날 어두운
저녁빛 속에서 그분의 생명 없는 육신을 끌어 내려 누군가가 내어
준 무덤에 넣어 놓았을 때, 그분을 가장 잘 알고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의 매장”, 카알 하인리히 볼록. 프리드리히스보호 성의 예배당 원화. 프리드리히스보호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낙담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른 메시야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소망과 신앙과 희망을 걸고 있던 그들의 구세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을 말씀하시던 분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 내신 분이, 그 앞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분의 슬픔에 찬 짧은 생애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생은 이사가야 오래 전에 예언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사 53 : 3, 5) 이제 그분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토요일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의 느낌을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주님의 안식일인 일주일의 첫째날 새벽이 왔습니다. 슬픔에 가득하여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 : 6)

여기에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 : 25)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는 비참함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일째 되던 날 권세와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22)고 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분은 죽은 예수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빈 무덤은 그분의 신성함과 영생의 확신을 증거해 주며 응답을 받지 못한 욕의 다움과 같은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 : 14)

죽은 것으로 그쳤다면, 그는 그대로 잊혀졌거나 아니면 그의 생애가 역사 책에 몇 줄로 소개되는 많은 훌륭한 교사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사와 함께 그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이사야 9 : 6)

욕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기 19 : 25~27)

마리아가 처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랍오니여”(요한복음 20 : 16)라고 부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의 주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물러가고 무덤의 승리가 깨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도 일변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또 실제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복음 20 : 28)라고 외쳤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잇을 수 없는 말씀은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 : 27)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후에 주님께서는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린도전서 15 : 6)라고 바울이 기록한 그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생활은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의미있는 표현이 되며,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서반구에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일어나 내게로 와서...”(니파이삼서 11 : 3, 6, 8~10, 14)

물론경은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성역의 말씀과 장면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말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인류의 주님께서 예언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시현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 계신 주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대 진리의 회복을 위해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 : 22~23)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상징물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떤 표적이냐, 어떤 예술 작품, 어떤 형태의 표현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어떤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심오한 것으로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상징은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에 대한 우리 간증의 의미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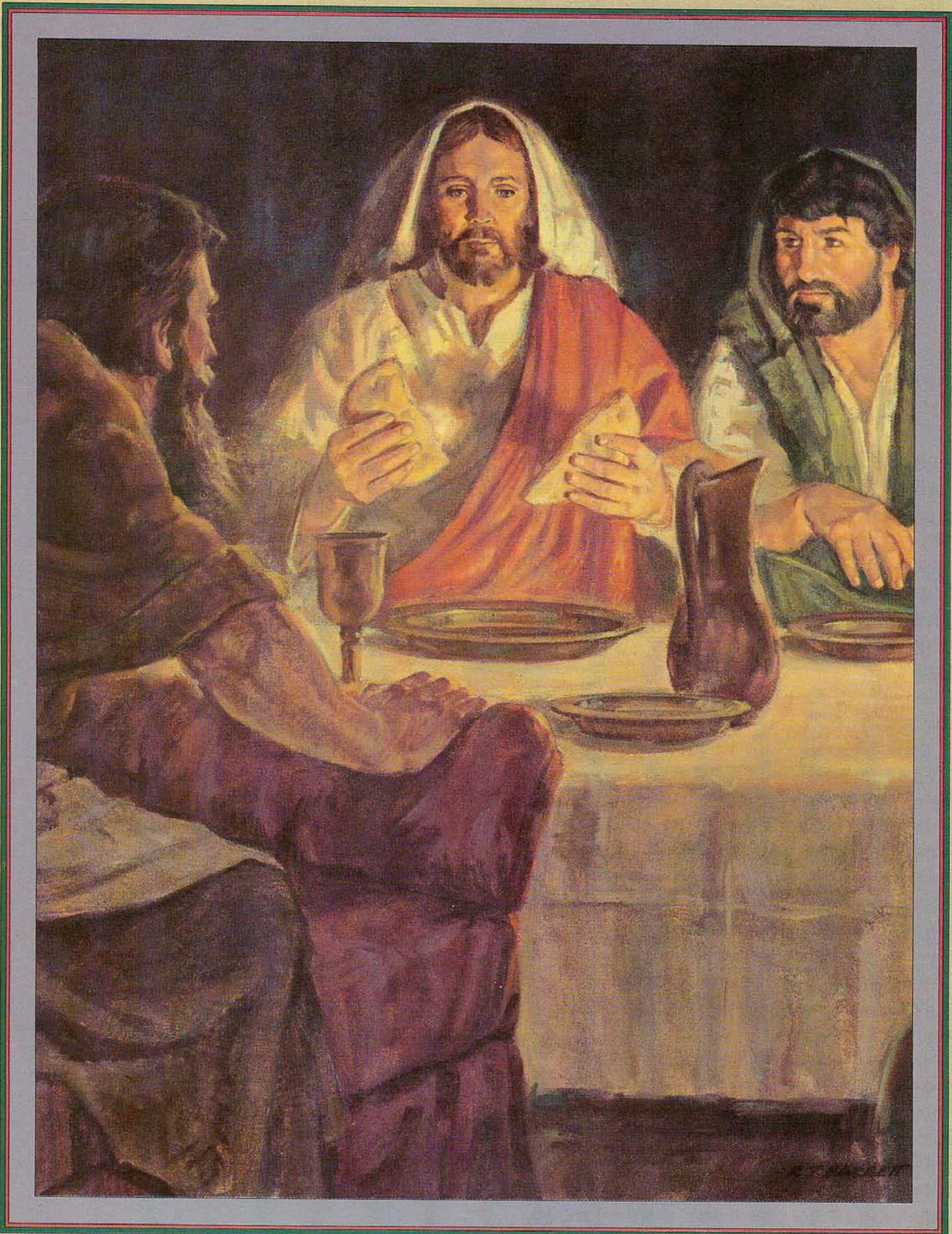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는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2. 부활에 대한 고대의 간증 이외에 또 현대의 간증이 있으니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현과 계시이며, 주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수백 만의 엄숙한 간증이 그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가족에게 그들의 느낌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가?



주님의 성찬을 이해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가 구세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성찬식이 경건과 기억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데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의 구세주, 그의 속죄 그리고 성찬식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갖는 대부분의 신성한 모임에 대해 생각할 때 성찬식은 가장 중요한 모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참석해 보면 몇가지 염려스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는 준비 부족, 그리고 때로 엄숙한 예배를 방해하는 경건치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와 그의 희생과 그분에 대한 빛을 기억하는 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명상과 반성, 경건, 회개, 우리가 하는 봉사에 있어서의 용서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가?

구세주께서 사도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시던 잊지 못할 순간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며 나의 감정은 매우 온화해집니다. 그것은 참으로 역사상 특별한 밤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무한하신 속죄로 끝을 맺은 유월절 절기의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음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다락방”(누가복음 22:12)에서 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공식적으로 동물의 희생에 대한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의 그의 성역을 침례라는 의식으로 시작하여 성찬이라는 의식으로 끝낸 사실은 의미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모두 그의 죽음, 장사,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찬에 관한 소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관해 소개하신 가장 완전한 기록은 제자 니파이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때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명하시니

“저들이 이를 먹고...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라.

“우리가 먹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 중에 하나를 성임하여 내가 권능을 주어 저로 떡을 때어 축복하여 나의 교회에 속한 자 곧 나를 믿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리니,

“내가 떡을 때어 축복한 다음 너희에게 준 것같이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성찬 의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같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고 무리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같이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한 바로 인하여 너희가 복될지이다. 이는 나의 계명을 이루었음이었으며, 기꺼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임이라.

“너희는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며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게 하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가 복되리니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짐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보다 더하거나 덜하여 행할진대 이는 나의 반석 위에 세움이 아니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움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불어 저들을 칠 때에 넘어질 것이요, 지옥문이 열려 있어 이들을 맞으리라.”(니파이삼서 18 : 3~13)

성찬에 관한 진리

몰몬경의 기록과 신약의 증거로부터 우리는 성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1. 예수께서는 그 자신, 즉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2. 우리는 그분의 몸을 기억하여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갯세마네, 갈보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합니다.

3. 그분의 피는 새로운 약속, 즉 이스라엘과의 새로운 성약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한 고통을 기억하여 물을 마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었으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그 쓴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8~19)

4. 우리가 순종하고 항상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상징물을 합당하게 취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개인적인 합당성은 우리가 성신을 받기 전에 필요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합당치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몰몬서 9 : 29)

예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있거든 저를 금하되”(니파이삼서 18 : 28~29)

합당성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합당성이란 성전 접견 질문에 언급되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가족 안에는 조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합당하려면 서로 용서하며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하고 증오나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회원들은 성찬을 취하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5.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마실 때까지는 이 상징물을 다시는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 : 29 참조) 우리는 다행히 주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위대한 성회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시리라고 하신 말일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분은 모로나이, 일라이어스, 침례 요한, 엘리야, 애굽의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미가엘(아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자리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려 내어 내게 주신 모든 자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것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의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교성 27 : 5~14, 특히 14절 참조)

말일에 있어서의 성찬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성찬 의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830년 4월 6일 화요일에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은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필요가 있느니라”(교성.20 : 75)

그리고 제사들이 성찬을 집행할 때 드리는 기도에도 관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엄숙했던 날 예언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떡을 취해 축복한 뒤 떼었다. 또한 포도주도 축복하여 그들과 함께 마셨다. 그후에 우리는 참석한 교회 회원 각자에게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게 했다.”(교회정사 1 : 78)

교회 역사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성찬이

우리는 그의 몸을
기억하여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갯 세마네, 갈보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합니다.

집행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회 중에 성찬이 집행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신
것은 교회가 조직된 지 1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교성 59:12)

교회가 회복된 이래로 150년 동안 주님과 그의 종들은 성찬
의식의 신성함과 의미를 강조하는 것에 관한 영감에 찬 많은 지시
사항을 주었습니다.

물의 사용.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1830년 8월에 계시로 주어진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취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장사지낸 나의 몸과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아버지 앞에 기념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를
행하면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문제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 원수로부터
포도즙이나 독한 음료를 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서, 참으로, 지상에 세워진 내 아버지의
이 왕국에서 새로이 만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마시지
말라.”(교성 2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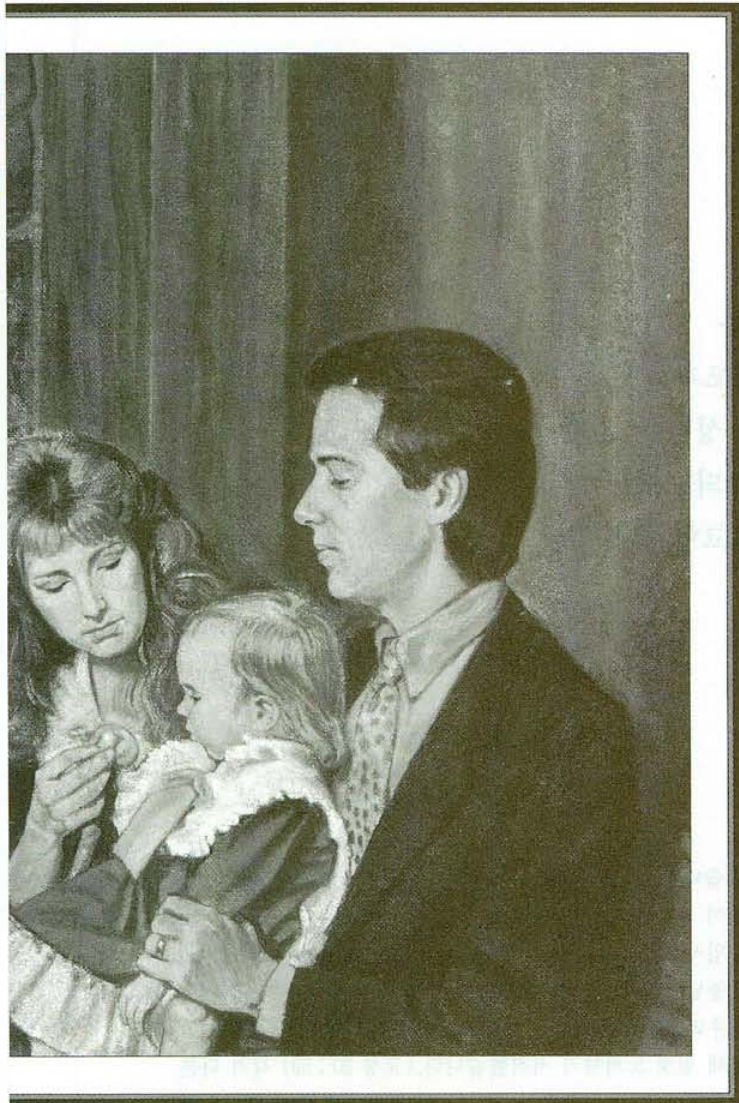
성찬 금지. 개혁의 시기(1856~57년)에 대관장단은 성찬을
너무나 신성한 의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러 달 동안
성도들에게 성찬을 금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그들이 맺을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일지, 1857년 1월 26일, 2페이지)

어린이가 참여하게 함. 1877년 7월 11일에 대관장단은 신권의



질서를 정연케 하기 위해 우리의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서한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돌아가시기 한달여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대관장단은 주일학교
시간에 어린이에게 성찬이 주어져서 그들이 “그 의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했던 것입니다. 대관장단은 또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정착민들 가운데 하나의 풍습이 된다면 앞으로 올
세대 가운데 주님의 날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즈 알 클라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75년, 2:289) 성찬은 주일학교 개회 순서의 일부가
되었으며 주례 성찬식 시간에 어린이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찬 집행시에는 설교가 없음. 교회 역사의 초기에 보면 성찬
도중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임이 시작된 후 곧



중지되었습니다.

성찬 도중 음악이 없음. 십구세기에는 성찬 도중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946년 5월 2일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은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절대로 조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솔로, 이중창, 합창 또는 악기 연주까지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6년 6월호, 384페이지)

형식주의를 피함.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대관장단은 교회 지침서를 통해 절차를 형식화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을 피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성찬을 전달하는 아론 신권 청소년의 복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복장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입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론 신권 청소년이 걸을 때 한 손을 뒤에 붙이고 걷는다거나 서있을 때는 팔짱을 끼거나 제사가 성찬을

축복할 때 팔을 직각으로 들어 올리는 등과 같은 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침은 성도들이 명상과 경건과 예배의 정신으로 성찬식에 참석하고 거룩한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임 자체에 관해 다른 영감에 찬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재임시인 1970년 12월 17일에 성도들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성찬식을 가지라는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찬식의 시간이 그후 단축되었습니다만 성찬식의 바람직한 영적인 표준에 관한 권고에 유의하십시오.

“물론 목적을 단순히 정해진 시간 동안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발전과 건전한 교리적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모임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사는 신앙을 돈독히 한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하며, 교리적 주제를 설명하고, 사랑과 형제애의 정신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행담, 논쟁, 비판, 복음의 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에 관한 토론 등은 삼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계획할 때 워드 또는 지부 합창단을 잘 활용해야 하며 변화와 흥미를 더하기 위해 음악적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자주 기본적인 원리를 거듭 강조하여 신앙의 목적과 기초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초기에 주님께서는 교회 모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성찬식이 성령에 의해
지시되고 인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간에 나의 교회의 장로들은 처음부터 또 이후 어느 때까지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집회를 사회하도록 허락되었느니라.”(교성 46:2)

우리는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성찬식이 성령에 의해 지시되고 인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성찬식에서의 영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단이 계속 강조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회원들은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임에 구도자를 데려오는 것은 회원과 선교사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찬식을 계획하는 것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책임의 하나입니다. 감독단은 모든 모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합니다. “회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청소년 문제나 관심사를 언급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가? 누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회원들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합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당성에는 용서와 사랑이 포함됩니다.

신앙 안에서 강화됨

성찬식을 위한 감독단의 기본 목적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교화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피며, 신중하게 노력하고 계획하여 성찬식에서 성령을 느끼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연차 대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1983년 4월 연차 대회)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감독단과 나이 많은 제사들이 나에게 성찬의 신성함을 얼마나 주입시켰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서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교성 20:59)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회원으로서 우리는 이 모임에서 함께 할 때 영과 사랑과 용서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깊은 명상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그러한 모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모임이) 교회 회원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되, 영의 역사와 성신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졌으니, 성신의 능력이 저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고 권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송하게 하였고 또한 그대로 행하여졌느니라.”(모로나이사서 6:9)

그것이 우리의 성찬식과 예배를 특징지을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모임이 끝난 후 한 자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들은 말씀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폐회 찬송을 부르고 머리숙여 기도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구세주와 그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고 성찬식이 경건과 기억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데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금식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상의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이 로저 폴러맨 선교부장
침이사도 평의회 보조 서기

정 확하게 들으셨습니다. 금식에는 다만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1. 우리는 주님에 대해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2. 우리는 영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가시키기 위해 금식합니다.
 3.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4.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고 영감을 받기 위해 금식합니다.
 5.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고 주님께 더 의지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6. 병든 자나 특별한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합니다.
 7. 금식 헌금으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금식합니다.
- 금식을 하는 데는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금식의 율법은 이사야 58장 3~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6~7절) 또한 금식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9절) 이 구절에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금식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금식이 가져오는 축복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동반자입니다. 그것들은 경전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마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관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엘마서 5:46) 금식에는 언제나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여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해서는 안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16~18 및 니파이삼서 13:16~18 참조) 몸이 아프든가 의학적으로 금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써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성스러우며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영감을 주고 교화하고 세워 주고 강화시켜 줍니다. 금식과 느낌은 내가 보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 스펜서는 2년 전 그가 침례를 받고 나서 금식하는 것을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금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지 않았으며 또 그가 금식 주일에 부모인 우리처럼 오랫동안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어느 금식 간증 모임에서 그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간증하고 싶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진지한 간증은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분명 그는 금식을 함으로써 마음에 무엇인가 느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의도와 기도를 근거로 한 금식을 한다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이 합당치 않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성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맥스 더블류 알레드
멜기세덱 신권 본부 위원회
전 집행 서기

성찬 의식은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 중 가장 신성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 성찬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맺은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 소유자나 장로가 합당치 않은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는 이 사실을 조용히 감독에게 알려 감독이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합당성을 판단하고 신권 소유자에게 성찬을 집행하도록 승인하는 사람은 감독뿐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일을 거절한다든가, 신권 소유자의 합당성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한다든가 또는 직접 책망하는 것은 모두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며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판단과 분별력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감독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합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의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건과 존엄성을 갖고 집행해야 합니다. 심각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신권 소유자도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성찬을 집행하거나 다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당성이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식과 부름을 수행하도록 허락을 받는 데 신권 소유자가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락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이지 이미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머무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신권의 의식은 승인을 받은 신권 소유자가 제정된 방법대로 집행한다면 유효합니다. 지역 지도자는 그들의 권세 안에서 오직 합당한 형제만이 성찬을 집행하기를 원하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이 참여한다해도 의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의 성결함이 침해된 것이지 의식 자체의 유효성이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취하고 사람이 합당하고 진지하다면 그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집행하고 취하게 되면 매주 우리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인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그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

들국화의 교훈

앤 램턴

꽃의 모양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의지력있고 즐거워 보였다.

옛 도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끄러운 세상과는 조용히 동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 있다. 동산의 벽 안쪽에는 신성한 느낌이 감돌고 있다. 동산에 들어서면 빈 무덤이 사람의 시선을 끈다. 이 무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동산에 찾아든다.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은 더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자주 이 동산에 갔으며, 어느 날 조용한 보도를 거닐고 난 후, 내가 좋아하는 벤취를 보고는 그곳에 앉았다. 커다란 나무에 가리워 꽃이 핀 덩굴에 둘러싸인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새소리를 들으며 오래 전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았다.

경전을 펼쳐 시선을 책에 고정시키니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은 내게서 멀어졌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필요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며 보낸 지난 몇 달 동안 그 말씀들은 내 마음에 새겨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한복음 19: 40~42)

읽는 동안 내 마음은 영상으로 가득 찼다. 이 영상들이 살아서 내 앞에서 움직였다.

하늘에 있는 해가 기울기 전에 부지런히 동산으로 들어간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무덤에 누이고 향유를 바르려 했다. 구세주의 가르침에 헌신적이었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와 사람들이 깨끗한 천과 향유로 주님의 몸을 싸서 새로 파서 만든 무덤 안의 돌 의자에 누이는 것을 멀리서 지켜 보았다. 날이 저물었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큰 돌을 굴러 돌 무덤을 막았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나의 시선은 책장을 떠나 그 영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제 그 무덤이 비어 있고 돌은 굴러졌다.

천천히 그 영상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앉아 있는 돌의자가 딱딱한 것을 느꼈으며 나무 위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영상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의 시선은 내 앞에 있는 덩굴에 머물렀다. 그것은 꽃이 만발한

들국화 덩굴이었다.

나는 그 덩굴을 주시하다가 꽃 하나하나에 매혹되었다. 순백색의 꽃잎이 오렌지색 나는 우단같은 노란 중앙부를 감싸고 있었다. 꽃의 모양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의지력 있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그 아름다움과 꽃이 전하는 메시지에 현혹됨을 느꼈다. 한 성구가 떠올랐다. “보라 만물은 각기 닮은 것이 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모세서 6: 63)

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을 깨달았다. 들국화 송이마다 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하고 있었다. 오렌지색 나는 노란 중심부는 하늘을 향해 그의 영광만을 추구하듯이 보였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창조물은 조금도 그의 빛과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꽃잎마다 그를 찬양하는 들국화 덩굴을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지지를 느끼셨겠는가! 우리가 그를 꾸짖고 조롱하며,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심치어는 미워했을 때에도 그는 그의 단순한 창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흔들림없는 간증으로부터 얼마나 큰 위안을 받으셨는가!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나는 경전에 기록된 위대한 사건들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았다. 높은 산 꼭대기나 신성한 무덤가, 또는 동산 등 아름다운 창조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

들국화 덩굴은 내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을 바라보신다면 사랑과 지지를 느끼시겠는가? 나는 그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가? 나의 얼굴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그가 살아 계심을 강하고 확실하게 간증하고 있는가? *

불편을 겪으신 메시아

제프리 알 홀런드

“구세주에게 삶이란 매우 불편한 것이었으며
나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받을 때 흔히 우리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할 때
당면하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에서 사탄은 “편리한 기독교인”을
내걸고 보다 쉬운 방법으로 계율을 지킬
것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거부하셨던 유혹이며 우리도 마땅히
그려야 합니다. 구세주에게 삶이란 쉽지
않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으며 나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받을 때 흔히 우리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악은 사탄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하늘을 향해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인의 때로부터 오늘날의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적대감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약속의
자녀들을 복음과 그 가르침에 대해 폭력적, 파괴적으로
거부하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심각한 죄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더욱 간교한 책략으로서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반항적이지도 않고 언뜻 보기에는
그리 사악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번째 방법이 더욱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리**라는 부드러운 유혹으로 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칭 기독교인에게 위안과 안일의 유혹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마태복음 4:2~11)

나는 유혹적인 생각은 말일성도 중에도 매일 매일 또는
매시마다 우리에게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분명한 유혹보다도 더욱 간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어떤 일을 하든 분명 우리의 욕망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 내부에 인위적인 욕구를 만들어 내려 애쓰기 보다는
자연적인 욕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에 대한
배고픔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십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그는 금식을 깨뜨릴 것처럼
보였으며 곧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간단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산은 주를 흠뻑
이시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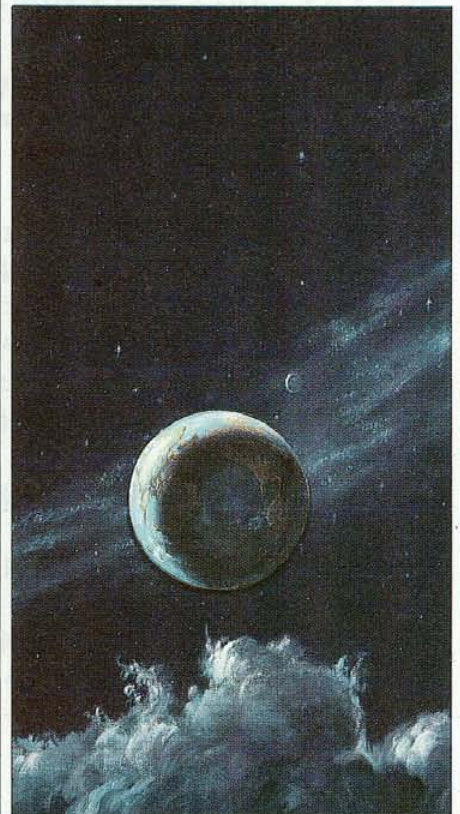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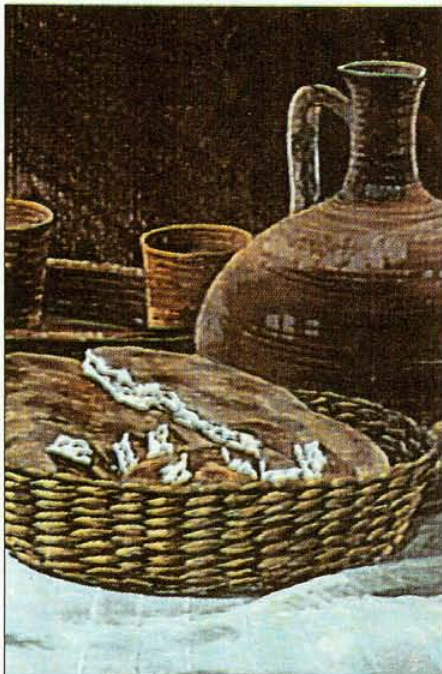
Edvard Mu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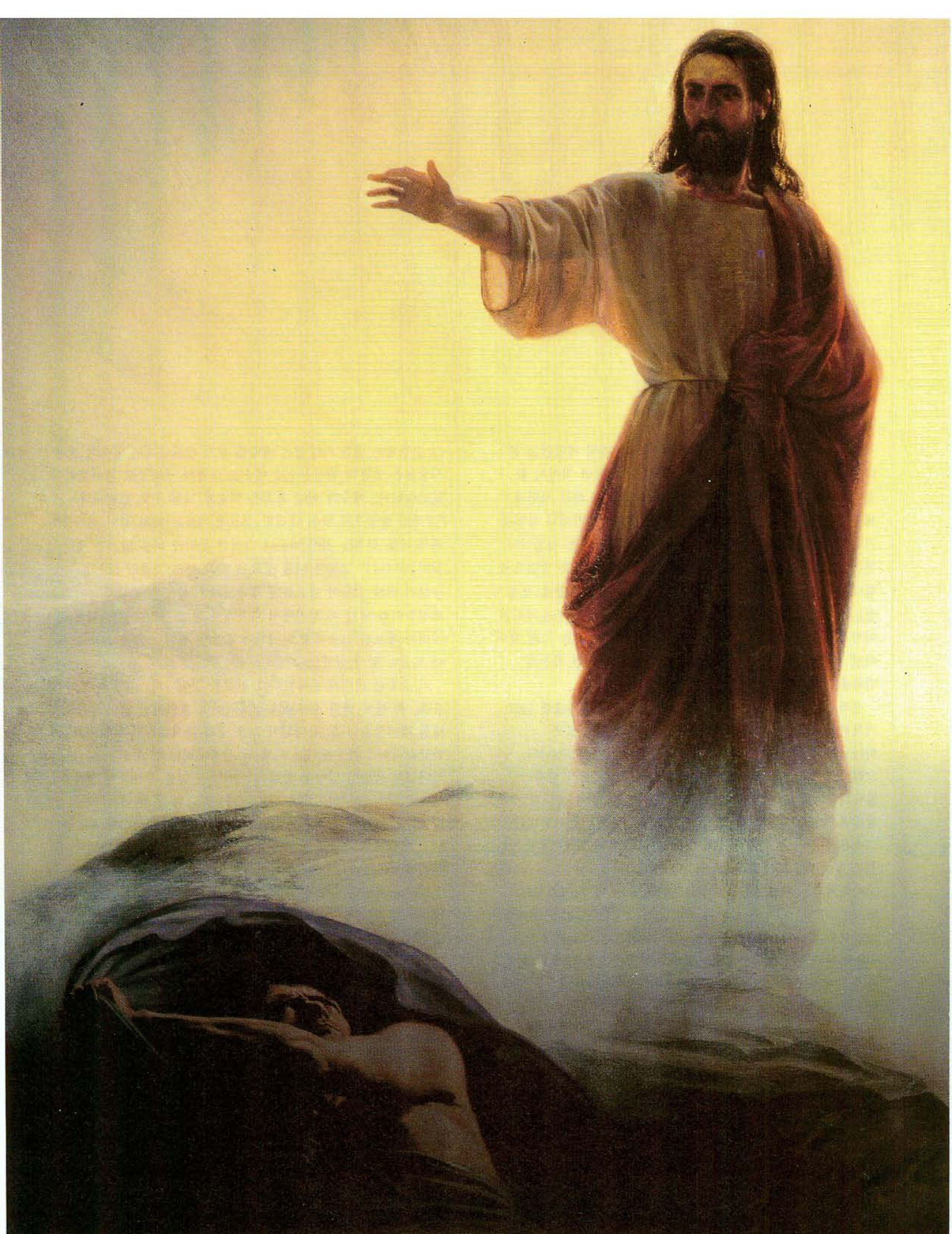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1~11)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은 먹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먹었고 곧 다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 동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사탄의 제안에 있습니다. 즉 권세를 남용하여 일정한 시간이나 방법을 기다릴 것 없이 쉬운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메시야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왜 일을 어려운 방법으로 합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이만큼 많은 필요한 영양분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자신의 만족을 거부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떡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식욕을 충족시키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만족을 뒤로 미루어 둘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 역시 우리가 향유하도록 계획되고 창조된 높고 거룩한 육체적 희열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욕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 편리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능력을 편리하게 타락시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나 자제와 더불어 얻게 됩니다. 다른 모든 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탄에게서가 아닙니다. 욕구에 당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꺼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소.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니오.” 때가 되어 사랑과 결혼의 결속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합당하고 성스러운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메시야는 없습니다. 구원은 자제와 회생을 통해 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는 육체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사탄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의 핵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야가 오실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보기 위해 드나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전통과 불신앙으로 예수를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했던 유혹은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뛰어 내리면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리가 너를 따르며 믿을 것이 아니냐? 그들은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들은 성약의 백성들이라 네가 이 성전에서 다치지도 않고 두려움없이 뛰어 내리는 것보다 그들에게 메시야가 참으로 왔다는 것을 보이는 데 더 도움이 될게 있겠느냐?”

이 유혹은 첫번째 유혹보다도 간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유혹, 즉 빵에 대한 요구보다 실제적이며 개인적인 영의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 두려운 성역에 하나님의 동반이 있어야 합니까?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확신을 얻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단 한번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여 영적인 확인을 받고 충성스런 회중을 얻고 사탄에게 대답하는 것을 안합니까? 지금 당장 말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영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거절과 억제 또한 신성한 준비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추종자를 얻게 되며 재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는 아직 개종자도 얻지 못했으며 그가 충분히 받아야 할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역은 미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결국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와는 달랐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침대에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고 금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 짐을 잘 지고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사업에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생으로서 노력했으나 그 후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으로서 울며 인도를 갈망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있는 성취도 쉽게 이룬 것은 없었으며 이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외없이 조용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를 알기 위해 또 그가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조용하고 겸손한 봉사에 바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그 사자들(이) …손으로 (그대)를 받들”게 됨을 알게 것입니다. (마태복음 4:6) 그것이 빨리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빨리 오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 짐을 잘 지고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사업에서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짐이 커지더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상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사탄은 약간 실망하기는 했지만 다시 시도합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유혹할 수 없게 되면 그는 구세주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제의합니다.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높은 산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간교함의 부족과 실패를 그가 제언하는 일의 웅장함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그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는 천지의 하나님인 위대하신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나? 너는 값싼 떡도 거절을 했고, 메시아의 드라마도 거절했지만, 아무도 이 세상의 부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의 대가를 말해 보아라.” 사탄은 그의 첫번째 신조, 즉 이 세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유혹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권력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가장 불편한 과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가 은혜의 보좌에 이르시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회생을 통해서입니다. 약 7세기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3, 5, 7)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를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 합니까? 물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때로 이상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과 명성과 세상적인 영광은 우리의 영원한 표준이 아닙니다. 참으로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영광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과 내가 개인으로서 먹고 입고 왕국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치 못한 구매 또는 “일생에서 한 번”의 기회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때로 불로소득을 피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불행하게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족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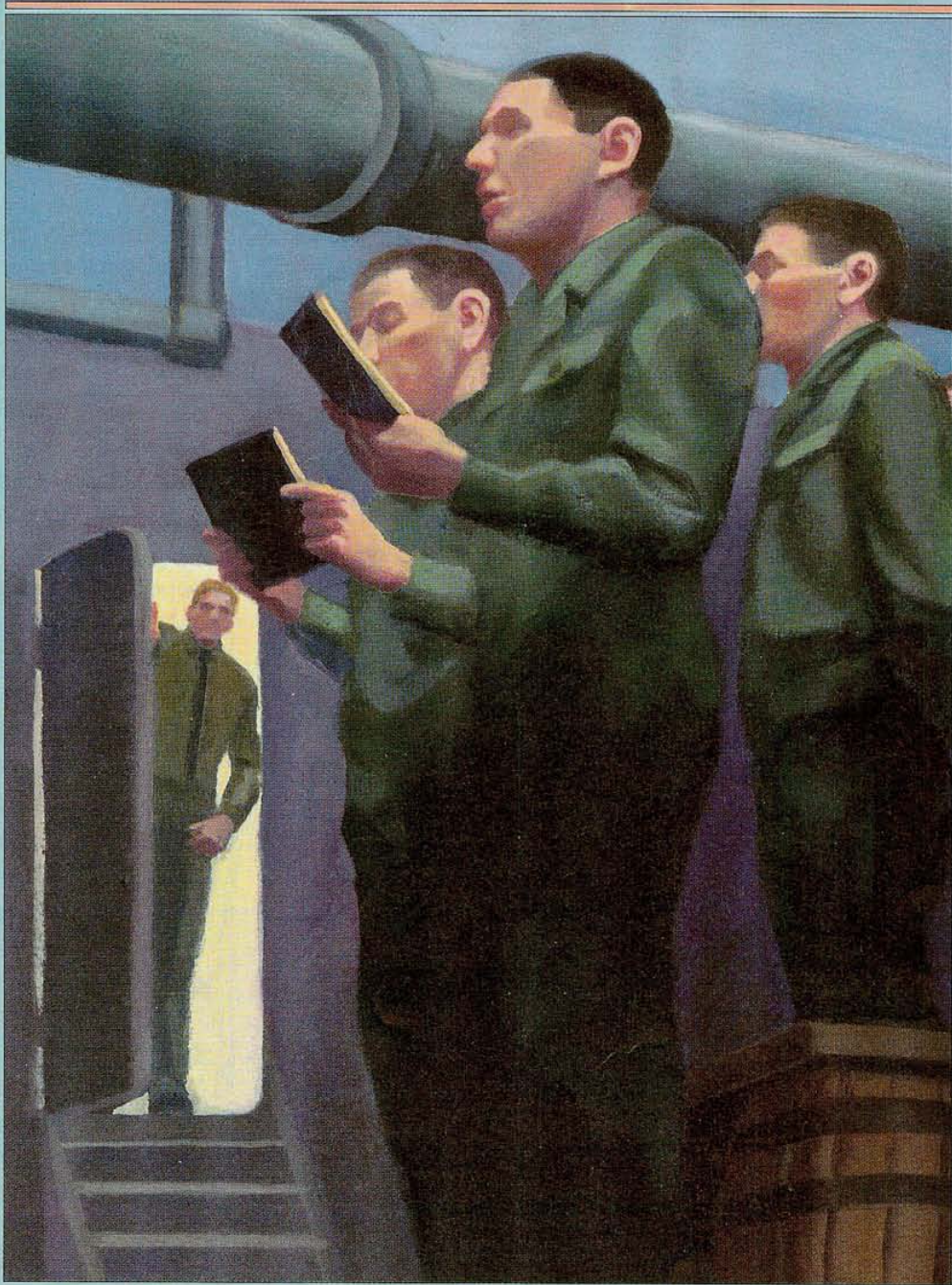
적절하고 필요한 수입, 학업 또는 달리 정지한 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자격을 갖추는 것은 노력하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고 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육체적 만족과 영적인 확신 또는 물질적인

소유도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성약에는 편리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생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올바르게 하면 때로 기회는 오게 됩니다. 노력을 했을 때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것을 기다렸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수종들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4:11 참조 그러한 일이 여러분 생애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제프리 알 홀런드는 유타주 트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임.





군목이 마음을 돌린 경위

랄프 모튼슨

전 쟁중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우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정박해 있는 상선 씨레이호의 경사진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목적지까지는 45일이 걸릴 것이다. 배에 탄 2,500명 수병중에서 적어도 3명은 말일성도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성찬식에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배의 군목에게 모임을 위해 배에 있는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가

배에 탄
2,500명 수병중에서
적어도 3명은 말일성도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성찬식에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을 위한 특별 모임을 진행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우리는 교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갖는 모임에 참석해야 할 판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스스로 진행하며 예배당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수가 예배당을 사용할 만큼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세 명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계속 요구했으며 그는 계속 거절했다. 결국 그는 이미 계획된 다른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조하면서 떠나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득 찬 배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갑판위에 있는 모든 장소는 사람으로 붐비는 갑판 아래의 복잡하고 답답한 침실보다는 신선한 바닷 바람을 마시러 나온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를 살살이 뒤져 본 뒤 우리는 배의 굴뚝 근처 협소한 장소에서 다리를 오무리고 앉아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노래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은밀한 장소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함께 모일 수는 있었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토론하고 있을 때 배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성이 들려 왔다. “여섯 시에 45호실에서 모든 말일성도를 위한 예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놀랐다. 그러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된 것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군목이 마음을 돌렸는지 궁금했다.

여섯 시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히 계단을 타고 내려가 전에 음식을 보관해 두던 창고로 갔다. 커다란 방에는 길고 두꺼운 판자며 조그마한 나무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졌 것에 들떠 있었다.

우리는 널판지와 나무통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곧 전투 복장을 한 젊은이 몇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곳이 말일성도 모임을 위한 장소냐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 주었으며 곧 정리가 되고 모임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 수를 헤아려 보았을 때 갑판 아래의 특별한 방에서 가진 우리의 첫번째 모임에는 30여 명이 모였다.

군인용 복음 원리에 있는 노래와 성찬 축복문을 이용하여 우리는 특별 성찬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즉흥적인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을 느꼈으며 감동되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고 그리워졌다.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갈 줄 모르고 서성거렸다. 그것은 항해하는 동안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다음 모임을 기다렸다. 그 모임은 우리를 그 어려운 시기에 구해내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우리의 모임은 일요일마다 계속되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임은 군목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었다. 우리는 1945년 1월의 금식 주일에 모여 있을 때 군목이 계단을 내려와 우리 방으로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모임에 참석해도 좋으냐고 물었으며 우리는 기꺼이 승락했다.

전투 복장을 한 사람이 경건히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찬을 축복하고 겸손함과 진지한 자세로 그 상징물을 취했다. 성찬을 취한 뒤 한



다락방에서

마빈 케이 가드너



사람씩 일어나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한 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성장 과정의 일부였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것과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간증을 했다.

모임이 끝난 뒤 군목이 다가와 다음 주 모임에서 말씀을 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주저없이 그의 요구를 수락했다.

다음 일요일이 돌아왔다. 성찬을 취한 뒤 시간을 군목에게 넘겼다. 그는 나무 판자와 상자로 만들어 놓은 벤치 위에 앉아 있는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구며 또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든 계속하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그 모든 세월과, 내가 집도해 온 모든 모임, 내가 참석했던 모든 교회 평의회를 통해서 나는 지난 주 일요일에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느꼈던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여 주신 이 모범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말일성도에 관해 그의 마음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러 임무에 따라 각기 흩어질 때까지 매주 일요일 그 방에 계속 모였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군목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궁금히 여긴다. 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준 그에게 감사하며 “감판 아래”의 한 방에서 가진 그러한 특별한 모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

학교장인 랄프 모튼슨은 알라모사 콜로라도 스테이크의 알라모사 제1와드에서 살고 있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전통적인 장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열심히 오르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미국인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일단의 그룹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표적과 때로는 피로 물들여졌던 이 거룩한 도시에서 평화와 소망의 고무적인 표시도 보았다. 우리가 다락방에 온 것은 구세주께서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던 조용한 순간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높은 천정과 우아한 아치로 된 큰 방에 모인 우리는 이곳이 그 엄숙한 사건의 실제의 현장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들어가서 구경한 건물은 바로 이 전통적인 장소에다 1300년대에 프란시스코파의 승려들이 지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시의 어느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경축하셨으며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주시었고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고 권고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있었으며 그의 생애에서의 그 사건은 사실이였다. 배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경전에 나오는 장소에 머무르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함께 경전을 읽고 모두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있었으면 하고 원했다. 어떤 경우에는 방해받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여행자 그룹이 뒤쫓아 와 조용히 걸어 나갔거나 길 옆으로 비켜 주었다. 성지를 방문하는 동안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게 되었다.

다락방에 모인 뒤 우리 그룹 중에서 한 사람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은 다음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다른 방문자 그룹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긴 갈색의 옷을 걸친

수염난 사제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노래 가사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그룹에 대해 더 생각하고 있었음을 시인한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나는 우리의 노래와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 방에 있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사제의 걸을

지날 때 그는 갑자기 우리에게 몸을 돌렸다. 엑센트있는 어조로 그는 짧은 네마디의 말을 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은 평상적인 인사 이상의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기도와 같았으며 평화보다는 편협으로 더 잘 알려진 땅에서 낯선 사람의 친절에서 나오는 축복같았다. 아마도 그는 구세주의 말씀을 단순하게 노래한 우리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같은 참배객에게 주는 호의의 표현이었던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의 말은 유월절 식사 때에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방금 우리가 노래부르고 너무나 듣고자 했던 말씀의 영을 전달하고 있었다.

계단을 통해 복잡한 도시로 내려가면서 나는 다시 콧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일깨워 준 낯선 사람에게 감사를 드렸다. *



“최후의 만찬”, 카탈 허인리의 불룩, 덴마크. 프리드리히스보르 성 예배당 원화. 프리드리히스보르 미술관의 허기를 받아 사용함.

브

리감 영 대관장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말씀을 한 적이 있다.

그가 비서와 또 다른 두 사람과
더불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물었다. “영 대관장님, 전체적인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 사항, 특별히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해 주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때로는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영 대관장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도록 운명지워졌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독자적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어두움
속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브리감 영 공식 일지, 1857년 1월 28일)

나에게 있어서 “어두움 속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을
배우는 일은 생의 과제이다. 나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포기의 느낌으로 교체되는 때를 경험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개인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교회에 속하기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침례를

영적인 계곡

캐롤린 제이 라스무스

받은 후에 커다란 어떤
영적인 일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0년은
나에게 다른 식으로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러한 높은

영적인 경험이 계곡이나 심지어는 광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호함과 모순 때문에 고심했다.

복음의 원리와 실천 사이의 차이점으로 혼란을 겪었다.
해답보다는 질문이 많았으며 니파이처럼 나도 나를 쉽게
둘러싸는 유혹과 죄 때문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했던 영적인 광야를
통과한 후 나는 새로운 통찰력과 이해를 얻었으며, 나의
시야가 얼마나 유한한가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는 안일과
평안함이 행복이나 만족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화평과 기쁨을 더 잘 이해해 가고
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적인 정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계곡도 마련해 주심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아멘”이라고 말한 다음 나는 잠시 명상하고는 곧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해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의 간구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였다.

나는 세번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으며 몸조리를 잘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르고 있었다. 어린 두 아이를 남겨 두고 남편은 출장중에 있었으며 그때 나는 갑자기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이웃에 사는 회원을 불러 기름 축복을 부탁했다. 그는 곧 장로 정원희 회장과 함께 왔으며 나에게 병자 축복을 해 주었다. 그때 나는 영이 포근히 임재하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의사의 방문으로 나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나는 아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그날 내내 울면서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의 두려움은 축복을 받을 때 느꼈던 위안의 감정으로 바뀌었으며 나를 염려하며 나와 아기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가족과 친구의 염려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에게 용기를 줌을 알고 있었다. 이 포근한 느낌은 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기를 낳기 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나중에 건강한 갓난 딸을 안고 있으면서 나는 기도로 인해 올 수 있는 기적을 생각해 보았다. *

다이아나 허드슨은 앵커리지 알래스카 북 스테이크, 앵커리지 제11와드에 살고 있음.

나는 그들의 기도를 느꼈다

다이아나 허드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목적 : 자매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권장함.

승 천하시기에 앞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온 나라에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다. (마태복음 28 : 19~20; 마가복음 16 : 15; 누가복음 24 : 47~48 참조) 오늘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연차 대회, 1986년 4월)

많은 자매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언젠가는 선교 사업을 할 것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로 봉사를 하든 안하든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모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복음을 공부하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가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네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 (교성 11 : 21)

한 독신 자매는 비회원인 직장 동료가 점심에 초대하여 요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관해 질문했을 때 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직장 동료에게 첫번째 시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전했지만 더 잘 준비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복음 선교사들은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배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심을 간구할 수도 있다. 어떤 가족은 스테이크 선교사를 초대하여 선교 사업의 도구로서 몰몬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또한 친구와 우정증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가족이 선교 사업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 : 9)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가정을 기도와 평화와 배움의 장소로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영이 영접받는다면 우리와 가족의 간증은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교성 18편 10~16절과 교성 123편 11~17절을 읽고 우리가 가정을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과 화평과 배움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2.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비회원 또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48~51, 74~83, 89~94, 98~115, 130~31, 135, 167, 187~89, 208~10, 236~37, 240~44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참조한다.)



교회를 제외한 모든 일에서의 동반자

레논 클로스터 홀렛

마

리가 비회원인 토니와 결혼을 했을 때

그녀는 토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오래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복음을 사랑했으며 또한 그를 사랑했다.

분명히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여섯 아이를 두었지만 토니가 교회 회원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 긴 세월 동안 마리는 활동적인 말일성도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나 비회원과 결혼했을 때 겪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으나, 두 사람과 다 결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복

음은 마리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때로 그녀는 그녀가 갖고 있는 간증으로 땅을 진동시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 갑자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자녀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르침이나 표준에 의해 풍요롭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녀는 남편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그녀의 결혼 생활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은 썩기처럼 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른 남편이나 아내들이 교회를 부부 관계에 강제로 개입시키려 할 때 분노와 적개심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

마리는 교회와 남편 사이의 선택에서 교회가 남편의 적이 되지 않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복음이 협력자라면 그것은 그녀에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제외하고 그녀는 훌륭한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가장 신성한 관심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을 교회에 개종시키는 것이 그녀의 첫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때문에 결혼 생활이 희생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십 년 동안 실망을 느낀 끝에

나는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압력을 주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의 부모님은 우리의 약혼에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반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폭적으로 사랑과 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일찌기 그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든 안하든 당신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중요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행복해졌으며 나는 더욱 큰 화평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내게 잘 대해 주었으며 그는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정직합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늘 유감스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행을 그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결혼 생활의 일, 즉 사랑, 인정, 신뢰의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내할 뿐이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에게 교회 내에서 결혼하라고 계속 권고해 왔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종교적인 차이는 보다 큰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의 충성심이 서로 충돌을 빚게 된다. 자녀들의 삶이 흔히 좌절 속에 빠진다. ...공통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과의 결혼에는 많은 난관이 있게 마련이다.”(용서가 낳은 기적,

“**민**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전서 7:14, 16)

218~19페이지)

이러한 것들이나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교회 내에서 결혼하는
것은 모든 독신 회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
회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비회원이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이 내릴 수 있는 몇가지
결정이 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김볼 대관장은 결혼 생활에서 합당하게 역점을 둘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은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22)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른 아무란 말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결혼은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충절을 전제로 한다. 쌍방은
각기 온 마음과 힘과 충성과 영예와 애정과 성실함을 완전히
배우자에게 바치고 있음을 이해하며 대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듯이 배우자와 가족만을
전념하여 생각하는 마음과 귀와 눈을 가져야 한다.”(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2년, 142~43페이지)

교회의 젊은 회원인 조안은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는 알콜 중독자였으며
돈을 헐뜯게 쓰는 사람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즉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조안은 행복해지는 마술이라도 갖고 있는 듯이
보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안은 냉담하고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더욱
인내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은 온화하게 키웠으며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 여덟 명의 자녀 가운데 다섯이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모두가 성전에서 결혼했다.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년 전 그는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조안의 언니는 이렇게 말한다.
“조안은 자녀들이나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치 않았어요. 때로 그는
새벽 두 시나 세 시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제 동생은
아이들을 모두 깨워서 ‘얘들아,
아빠가 오셨다. 빨리 가서

뽀뽀하고 인사해야지.’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를 비판하지
말아라. 아빠 아직 복음을 모르셔. 우리는 아빠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해.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이 집의 가장이란다.’”

그러면 그녀는 행복했는가?

조안의 언니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가족과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행복을 나타내 보여었어요.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애가 얼마나 남편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했었는지 알고 있어요.”

조안은 많은 여성들이 포기했을 사람과 함께 산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으로부터 돌아서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결코 없었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왔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나 가족과 함께 지냈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그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크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어요. 나는 그가
나와 아이들을 사랑했음을 알고 있으며 그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훌륭한 모범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가 침례받았을 때,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지 28년 후의 일이었다.

조안과 마찬가지로 나의 모친도 비회원인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권고했으며 우리 형제들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 권고에
따르려고 헌신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감독은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집에 있기를 원하여 그 때문에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나의 부모는 가족에 헌신했다. 가정은 평화롭고 비판하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는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존중했으며 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는 내가 베네주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재정적으로 기꺼이 지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다. 나는 내가 성전에서 결혼하던 날 밖에서 서글픈 모습으로 기다리던 부모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래도 그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으며 결혼 축하연을 갖는 동안 나와 남편 옆에 기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회원이 아닌 것을 가끔 슬프게 생각했으며 언젠가 그가 교회에 가입할 것을 매일 기도드려 왔다. 그러나 기본봉은 것은 나는 어머니가 결코 아버지를 멸시하지 않았으며 관용과 사랑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감사한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로 도약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꺼이 조금씩 참여한다.

늦게 교회에 가입한 열성적인 회원인 존은 교회에 대한 그의 열성 때문에 아내와 거의 이혼을 할 뻔했다. 그녀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존의 감독은 그에게 “뒤로 물러서서”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녀가 스스로 유익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권고했다.

그후 몇 년 동안 존은 모임에 혼자서 충실하게 참석했다. 그의 아내는 서서히 교회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특별히 상호부조회 가사 프로그램에 감명을 받았으며, 요리와 정원 가꾸기에 관한 짧은 강의도 들었다. 그러나 교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아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존은 그들의 결혼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전했다.

“결코 복음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알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영원이란 사랑과 모범과 인내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충분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과 인정이 그 특유의 신통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떠한 결혼에도 축복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꼽았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에베소서 5:25, 33)

바울은 또한 비회원과 결혼한 교회 회원에게 인내하며 충실하도록 권고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고린도전서 7:14, 16)

“특별한 인도를 받기 위해 자신을 살피 보십시오.”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 결혼하여 힘들게 생활해 온 한 말일성도 아내가 권고했다.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께 의탁하며,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마음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활동적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실하게 행했다고 느낄지라도 그들의 결혼이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 심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칼프레드 브로데릭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한다면 아무것도 왕국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힘을 갖지 못하리라고 거듭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이든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9)”(한 몸, 한 마음: 해외 왕국의 사랑을 성전 결혼에 실천함,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57페이지)*

레논 클로스터 홀멧은 솔트레이크 코트우드 하이츠 스테이크의 버틀러 제14와드에 살고 있다.

탈수증 처리 방법

말일성도 가족은 탈수 증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처리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범미 보건 기구 소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탈수로 야기되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건강 위생이 철저한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이 구토나 설사를 통해 몸으로부터 많은 수분을 잃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수분을 잃는 것을 탈수라 한다. 섭취하는 수분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잃게 될 때 탈수의 상태, 즉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설사나 구토를 통해 쉽게 탈수증에 걸린다. 음식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탈수증이 생길 수 있다. 탈수증은 어떤 연령 층에도 걸릴 수 있으나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걸리며 또 가장 위험하다. 아주 묽은 설사를 하는 어린이들은 탈수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가족은 각자 여러가지 탈수 증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처리 방법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탈수증이 있는 사람은 입이 건조하거나 갈증을 느낀다. 소변이 적거나 거의 없으며 색깔도 매우 짙다.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 복부의 피부를 꼬집을 경우 수축되지 않는다. 유아의 정수리의 물렁한 부분이 가라앉는다. 눈이 들어가고 눈물기가 없다. 체중이 갑자기 줄 수도 있다.

세계 보건 기구는 탈수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료를 줄 것을 추천한다. 이 음료는 체내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염분과 당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탈수증에 걸린 사람을 집에서 치료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탈수증은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 많은 양의 음료수나 생리 식염수를 마시게 하면 대체로 예방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묽은 대변을 보는 어린 아이에게 중요하다.

생리 식염수

1리터의 물에 설탕을 테이블 스푼으로 깎아서 두 번, 소금 ¼티스푼, 소다 ¼티스푼을 넣는다. 소다가 없으면 소금을



¼티스푼 더 넣는다. 생리 식염수에는 이상의 성분의 양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물을 주기 전에 맛을 보되 눈물보다



짜서는 안된다. 음료에 오렌지 한개의 즙, 바나나 으갠 것, 또는 코코넛 수액을 넣으면 좋다.

탈수증에 걸린 사람에게 이 음료를 매 5분마다 밤낮 계속해서 조금씩 마시게 하여 소변이 정상일 때까지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 3리터 이상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에게는 적어도 하루에 1리터 또는 설사를 할 때마다 한 컵 정도가 필요하다.

사람이 토할 경우에도 조금씩이라도 생리 식염수를 마시게 한다. 모든 음료를 다 토하지는 않는다. 만약 탈수증이 심해지거나 4~6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혈관(정맥)에 액체를 투입하기 위해 의사를 찾도록 한다.

생리 식염수를 줄 경우, 음식물을 주어야 하며 어린 아기일 때에는 모유를 계속 먹여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재수화 소금을 조그만 봉투에 넣어 팔기도 한다.(약 1리터 정도에 사용함) 이러한 소금은 사용하기에 좋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가정에서 생리 식염수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생리 식염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없을 때에는 그 특별한 음료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물과 같은 깨끗한 음료, 과일즙 또는 묽은 스프 등을 준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러한 재료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은 모든 가족이 탈수증을 식별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권장한다. 상호부조회 가사 활동에는 탈수증의 증세를 식별하는 방법과 생리 식염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기억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을 다스리며, 기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간의 두뇌에 천조(1,000,000,000,000,000)의 내용을 저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열 개나 열 두 개 정도의 실수가 가능하다 치더라도, 사람이 신앙개조 13조를 외우고, 선교사 토론이나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기본 공식을 외우는 데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실은 기억과 기분, 기억과 간증, 기억과 모범, 기억과 생각, 기억과 여러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관계에 대해 복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억과 기분

전문가에 따르면, 기억이 대개 우리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인생에서 다만 절망적인 경험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질고 비판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원수가 자신에게 대적했던 일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기를 잃기 쉽습니다. 과거의 상처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과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경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밝은 표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나는 매우 기분나쁜 성격을 지녔던 선교사와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그는 불쾌한 기억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시달렸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인생관은 이러한 기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에 의해 모든 것이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는 이노스가 짐승을 사냥하러 숲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친이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되새겨 봄으로써 그의 기억을 북돋으며 성도들의 기쁨을 생각했을 때,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기도와 신앙의 행사를 통해 이노스는 기분이 고양되고 짐이 가벼워진 채 숲에서 나왔습니다. (이노스서 1:1~8 참조)

엘마와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 했을 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기억했던 엘마는 영원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그의 부친이 예언한 모든 것을 기억했을 때,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나의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이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엘마서 36: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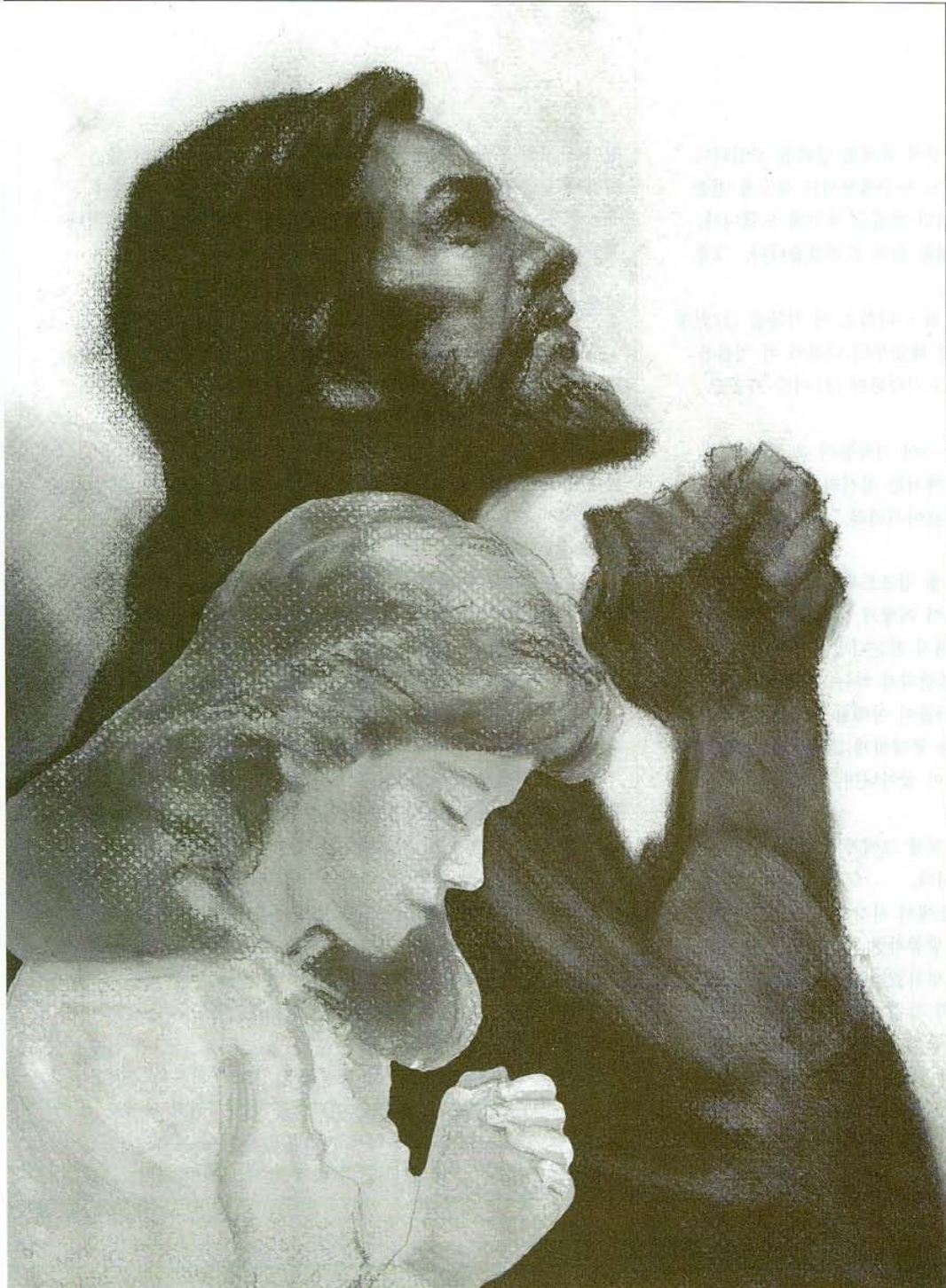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 속에 얽매어 다른 모든 것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것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생활이 밝고 낙천적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은 기억 가운데서 어떤 기분을 느끼니까? 기억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이 기분을 좌우함을 명심하십시오.

기억과 간증

선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는 자주 구도자에게 물문경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은 모로나에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구도자에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지 여쭙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책에서 말하는대로

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조화될 때

진리는 드러나고
한층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극을 받고 기억이 살아나며,
마음은 영의 속삭임에
응답할 준비를 합니다.



성도의 빛 / 89 3월호

약속합니다. “그 책의 진실함이 성신의 권세로 알려질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사용한 어느 누구에게서도 잘못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보다 낮고 성공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간증에 이르는 네 단계에 관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종종 소홀히 취급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로 이 기록을 (1)읽게 하실 때에 (2)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3)기억하며 (4)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난지 (5)간주하여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사 10:3~4)

나는 기억하며, 간직하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들을 읽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계획에 적합한가를 기억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조화될 때 진리는 드러나고 한층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극을 받고 기억이 살아나며, 마음은 영의 속삭임에 응답할 준비를 합니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이 개심하기 전에 그에게 많은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봅시다.

“…세상에 관한 것과 아담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을 그에게 들려 주었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백성들의 기록과 성스러운 경전을 왕에게 보이며 설명하였더라.”(엘마서 18:36)

아론도 라모나이의 부친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암몬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타락과 구원의 계획 및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간증의 기초를 세우도록 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약해지거나 비틀거릴때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것을 회상할 때 여러분은 라모나이

과 렛트와 솔은
여러분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추억을
칠할 때 알맞은 색깔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왕이나 그의 부친이 경험했던 영적인 치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사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치료입니까.

기억과 모범

우리를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이 마땅히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아버지의 본래의 목적은 “지상의 주민들에게 교훈과 희생의 모범으로 영향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49페이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나 영웅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그러한 모범을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내리려는 결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러할 것입니다.

힐라맨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 것으로 보아 기억과 모범의 가치를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난 첫번 조상들의 이름을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 이름을 기억할 때에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조상을 기억할 때에 또한 조상들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며, 이를 기억할 때에 저들의 선하심이 어떻게 기록되어 전하여 졌는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여, 마치 선조들에 관한 기사가 선하게 기록되며 이야기된 바와같이, 너희의 선행도 그대로 기록되며 또한 전해지기를 바라노라.”(힐라맨서 5:6~7)

여러분은 명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의 기억을 혼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은 선행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하여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겨 두어야 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을 앞서
가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기억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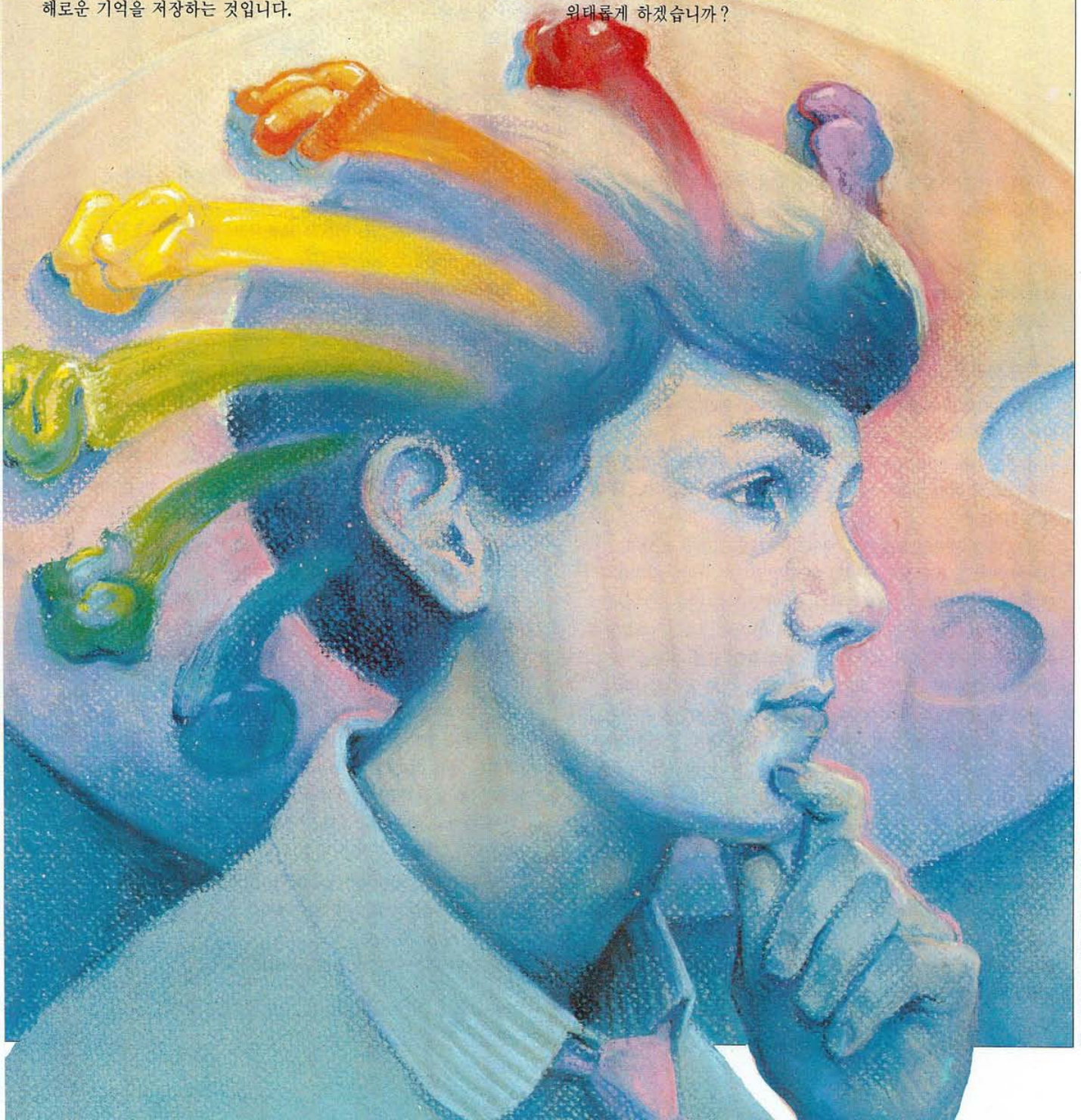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의 소산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도색물을 읽고, 선정적인 영화를 보며, 합당치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몇 교회의 회원들이 어떻게 이 신성한 훈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교성 121 : 45~46)

얼마나 훌륭한 약속이 이 성구에 담겨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가 신임과 신권의 교리와 성신의 동반을
위태롭게 하겠습니까?



기억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덕으로써 생각을 장식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과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파괴적이고 저속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사탄의 쇠사슬처럼 강하게 여러분을 얽어 뱉 수 있습니다.

기억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덕으로써 생각을 장식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과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을 유쾌한 기억의 신성한 성소로 만듭니다.

기억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력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도
장미에 대한 추억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이는 어떤 계절이라도 우리의 자아를 가질 수 없음 또한
사실입니다.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자아’를
갖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개인의 역사를 편찬할 때까지
기억과 자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원고를 읽고 편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주의깊게
읽고 틀린 곳이 있으면 고치시오.” 30분 후쯤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렇게 나쁘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래 고친 곳이 있오?”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예요. 쓴 것 중에서 당신을
지워 버리거나 편집하고 싶지가 않아요.”

후에 우리는 나의 일지를 복사하여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것이 책장에 꽂혀지게 되고 단지 이따금
읽혀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주일 전에 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개인 일지 때문이에요.
아빠의 생애를 읽고 있어요. 아빠가 하신 일과 경험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을 확대시킨, 고대인들이 보관해 온
기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록은
올바르게만 보관된다면, 언어를 보존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미래의 독자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기록되어야 할 여러분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내부의 생각과 깊은 느낌과 진지한 간증을 인생에서의
다른 여러 은총과 함께, 여러분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올 세대에게 이 축복과 또 더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기억과 추억에
관해 말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맺은
신성한 성약, 맹세, 의식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심판의 날에 담당하게 될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간구합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또한 동시에 나는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의로운 자의 명단에 기록되며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록부의 역할을 할 “기억의 책”에
기록되기를 빕니다.(니파이삼서 24:16)

나는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간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의로운
사람이 기억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명 그것은 생각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인 것입니다. *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한 말씀 중에서 발췌함.

당연한 것으로 여기저 많음

제네비브 반 와그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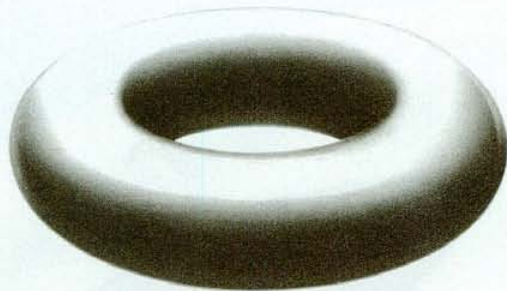
친 구와 보우트를 타는 데 초대되었다고 상상해 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다. 붙잡고 떠있어야 할 물건이 필요하다. 배에는 쿠션, 벨트, 고리 및 여러 종류의 구멍 조끼가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멍 용기를 집겠는가? 아무것이나

착용하겠는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이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가?

최근까지만 해도 나는 어떤 구멍 기구도 모두 똑같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마음이 달라진 것일까?

최근에 나는 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안전 전시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수상 안전 전시품은 나의 흥미를 가장 크게 끌었다. 내가 아는 여러 가지 구멍 용품이 많이 있었다. 각 장비마다 눈에 띄는 글씨로 한 마디씩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안전이 증명된 기구에는 “예”라는 글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고 증명되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가 붙어 있었다. 나는 놀랐다. 나는 모든 기구가 안전한 것으로 승인을 받아 비상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시회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장비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만 모든 것이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을 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물을 흡수하여 중량을 가중시켜 익사케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합격품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으면 승인된 기구만 사용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모든 구멍 도구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고 생각했다. 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러자 마음속에 한 가지 비교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철학이 있지만 그 모두가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죽음의 덫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인기있는 철학은 우리에게 “넘버 원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은 혹시 “좋으면 행하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도둑질을 하든,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한다. 우리는 또 어느 곳에서나,

인생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철학들은 매력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언들이 가르친 바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원리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다음 말씀을 비교해 본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 “최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니라”(엘마서 41:10) 및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모든 철학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만든 신조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치셨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태복음 15:9)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구원의 계획은 하나뿐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도 하나 뿐이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특별히 영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지식을 얻도록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적용한다. 하나님의 진신잡주를 입자. 수중 안전이든 영원한 안전이든,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자. *



할아버지의 세 아들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Paul Mann

나는 막 열 두 번째 생일을 보냈으며 감독님과 집사 성임에 관한 집견을 했다. 여러 해 동안 감독을 지내신 아버지가 나를 성임해 주었다.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는 교회의 축복과 특별히 신권의 축복을 누리는 일을 가능케 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열 두 살의 소년으로서 나는 그 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주에 나는 성찬 전달을 도왔다. 어머니는 나의 복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바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것이 흥미있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싶다.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장했음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기분좋은 생각이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난 뒤 부친이 나에게 일지를 들고 왔다. 그 책은 웨일즈에 사시던 할아버지의 생애가 적힌 일지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읽어 보라. 특별히 마지막 페이지들을 잘 읽어 보라.”하고 말했다. 부친은 그 책을 내 앞의 테이블 위에 얹어 놓고는 나갔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열 두 살된 소년이 것처럼 오래된 옛날 책을 읽어야 했을까? 이유는 하나, 즉 내가 그것을 읽기를 부친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부친은 내가 읽기를 원하는 페이지에 표시를 해 두었다.

내가 읽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

11월, 바깥 날씨는 차갑다. 숲속 나무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나는 벽난로 앞에 놓인 나의 오래된 가죽 등받이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떠 주신 오래된 쇼울을 무릎에 덮고 있다. 내 옆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으며 나는 줄이 쳐진 종이에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시력이 나빠기 때문에 줄이 넓게 그어져 있다. 일렁거리는 불꽃은 나의 생각을 자극하는 듯,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입했던 때가 생각난다. 우리가 웨일즈의 해변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바람이 몹시 불고 있었다. 아내의 건강은 좋지 못했으며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찬물이 그녀와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감리하는 장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찬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 일지의 다른 곳에서 나는 우리가

견디어 온 박해에 대해 기록했지만 지금은 세 아들에 관해 말하고 싶다.

윌리엄은 첫째들이었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그의 사이에는 강한 사랑의 유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은 활달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침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성도들이 있는 시온으로 가고 싶어요. 비자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이 나오면 떠나겠습니다.” 일년 후에 비자가 나왔으며 윌리엄은 떠날 준비를 했다.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이 되었다. 그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언덕에 있는 오두막 문가에 서서 어깨에 짐을 메고 떠나는 그를 지켜 보았다. 다시는 그를 못보리라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나의 일부인 그가 떠나 버렸다. 나는 그를 잃은 것인가? 해가 창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하여 나는 태양을 잃은 것인가? 그는 나의 첫째들이었으며 그의 생애는 신앙과 겸손을 교훈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그는 가족을 화평케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아픔은 덜어졌다. 그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으며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의 기쁨에 관해 말했다.

일년쯤 후, 둘째 아들 존이 저녁을 먹던중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미국에 있는 형에게 가기로 했어요. 비자를 신청해 놓았어요.”

나는 가까스로 성년기에 접어든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형과는 달랐다. 머리카락이 짙은 색에 약간 곱슬인 그는 잘 생긴 아이였다. 미소를 지을 때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으며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어떤 면에서 그는 나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했다. 나도 조금 곱슬인 머리 색깔이 짙었으며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나는 역에 나가 전송을 했다. 기차가 역에 들어올 때 나는 그의 어깨 위에 눈물을 흘렸다. 기차가 떠날 때 내 생애의 일부인 그가 기차와 함께 떠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내 생애에서 가장 외로운 발걸음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슬픔을 없애려고 많은 애를 썼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고 말았다.

세째 아들인 아이보르는 아직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이 개월이나 일찍 태어났으며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베개 위에 누여 데리고 다녔다. 그는 성인이 되었지만 심장 질환으로 고생을 했다. 그는 집안의 시인이었다. 건강은 나빴지만 항상 행복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집 주위에 둘러서있는 나무를 향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그가 심장이 멎기 불과 며칠 전 함께 풀밭을 거닐고 건너편 골짜기를 바라보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아빠, 들어 보세요!”

건너편 계곡에서 빠꾸기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였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빠꾸기는 봄이 오는 것을 알려 주고 멀지 않아 풀밭은 데이지 꽃으로 하얗게 덮이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겠지요. 아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그는 자다가 죽었으며 언덕에 있는 작은 묘지에, 어머니 곁에 묻혔다.

그 아이의 장례식은 마을에서 큰 행사였다. 말일성도로는 최초의 장례식이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왔지만 대부분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왔다. 장의사인 존즈씨는 검은 양복에 높은 모자를 쓰고 두 마리의 검은 말이 끄는 마차에 관을 실어 날랐다.

묘지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조객들이 마차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의 소리는 마치 산에서 부는 여름의 미풍같았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먹이소서”라는 가사가 나오자 그들은 바위 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소리를 높였다. 오, 내가 떠나는 고향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여, 애통하는 여러분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아내가 그 노래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서랍에서 아들의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어 보았다. 큰 아들은 이렇게 썼다. “저는 현재 대제사 그룹 지도자며 성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설레입니다. 와드의 감독으로 성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불꽃이 약해지고 있으며 손이 너무 피곤하여 오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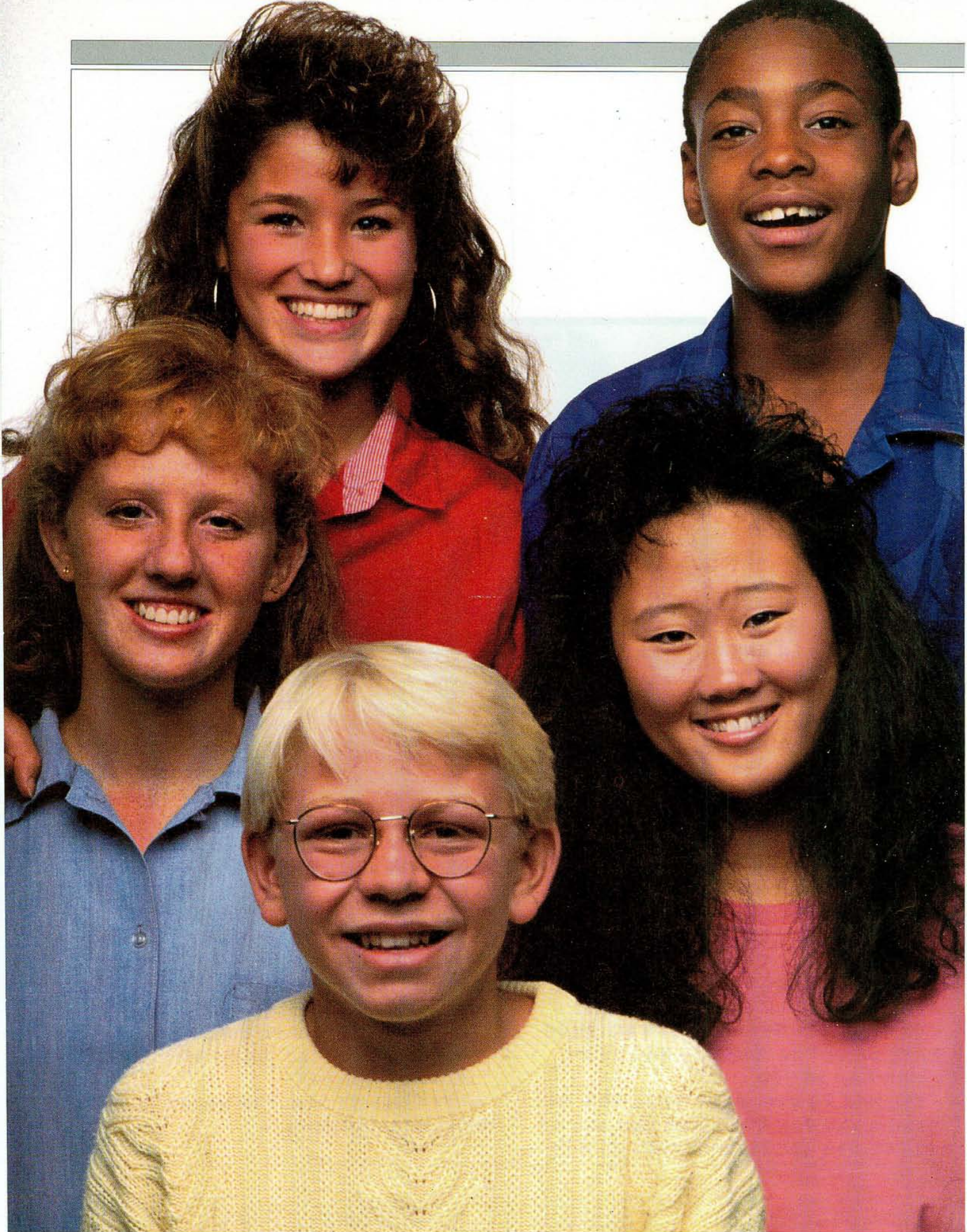
다음 말은 내 부친의 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 할아버지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으며 먼저 가신 부인과 세째 아들 곁에 묻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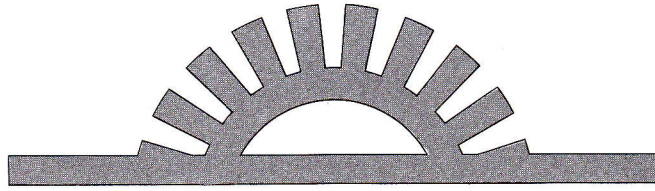
내가 다 읽고 났을 때 나는 곁에 서 계신 아빠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나도 그랬다. 그러나 열두 살된 아이는 그리 오랫동안 슬퍼할 수는 없었다.

“아빠, 아빠가 둘째 아들이어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래, 내가 둘째 아들이란다.”

“머리카락이 이제는 검지 않네요. 그대로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희망의 메시지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목표로 온 마음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비관적인 온갖 생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벗, 1987년 3월호, 7페이지)

“나의 아들이아,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 (그가)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그의 부활),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나이사 9 : 25)

“거룩하신 구속주의 메시지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는 경이로운 소망이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위대한 자유가 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당신에게도 손길을,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0년], 44페이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것을 알려 주셨으며 이제 주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니 낙심하여 고개를 떨어뜨리지 말자.”(니파이서 10 : 20)

“불명예와 죄,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압박당하지 마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시오.” 매리온 디 행스

장로(앤사인, 1981년 7월호, 67페이지)

“과거가 어떠한 간에 여러분에게는 한점 흠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연차 대회, 1969년 10월)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갖고, 해의 왕국으로 향하는 길에 굳건히 선 우리는 위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절벽이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다른 수많은 소망과 함께 할 때 혼란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소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데스 지 캡, 청녀 본부 회장(나는 신앙으로 걸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7년], 24~25페이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 : 13)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과 그의 복음때문에 우리의 죄가 침례의 물에 씻기워졌습니다. 죄와 죄악이 마치 불에 타듯이 우리의 영혼에서 불타 버렸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이해력을 불러일으키는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연차 대회, 1978년 10월)

저 회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 : 26~28
